

“관음도량 바닷가에 조성 해조음 들으며 능엄선 수행”

조용헌교수, 종교학회 불교분과 월례회서 발표

“나산사 흥련암 법당에 떨어진 구멍은 해조음을 들으며 깨달음을 얻는 ‘능엄선(楞嚴禪)’을 하기 위해 놓여 놓은 것이다.”

11일 열린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위원장 해주) 월례발표회에서 조용헌 교수(원광대)는 “흥련암을 비롯하여 보문사 보리암 등 관음도량이 모두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 것은 <능엄경>에서 제시한 4가지 소리 가운데 해조음(海潮音)의 청취가 그 주요한 이유”라며 “흥련암 법당의 구멍을 통해 보이는 관음굴에서 관음을 친견하려는 신앙적 용도이면서 동시에 해조음을 청취하기 위한 수행적 용도에서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소리에 의식을 집중하는 선법인 능엄선은 <능엄경>의 이근원통(耳根圓通) 수행법으로 귀로 소리를

들고 깨달음을 얻는 수행법이다. <법화경>에는 묘음(妙音), 관세음(觀世音), 범음(梵音), 해조음(海潮音)이 세간음(世間音)보다 수승하다고 되어 있다. <능엄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리에 집중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4가지 소리는 관음도량이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단서로 특히 주목해야 하는 소리는 ‘해조음’ 즉 파도소리이다.

조 교수는 흥련암 법당의 구멍이 해조음을 듣기 위한 용도에서 조성됐다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중국 보타도 불공거관음원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불공거관음원의 원래 위치가 100m 가량의 U자형



◇조용헌 교수

동굴인 조음동(潮音洞)의 중간 반환점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음동의 파도가 들어가는 입구는 관음보살이 나타났다는 ‘현신처(現身處)’, 파도가 나오는 출구는 관음보살의 방광(放光)이 있었다는 ‘광명지(光明地)’라는 암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 법당에 앉아 있으면 바닷물의 입출음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절묘한 구조이기에 흥련암과 마찬가지로 해조음을 수행법으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겐지호타 교수팀이 발표한 ‘파도에서 발생하는 초음파가 인체의 뇌에 미치는 생리학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과학적 근거로 제시했다. 이 연구



◇관음도량으로 유명한 흥련암은 법당 마루에 구멍을 뚫어 해조음을 들으며 수행하도록 지어졌다.

에 의하면 해조음은 가청 영역에서 들을 수 없는 초음파를 만들어 내고 이 초음파는 인체의 뇌에 영향을 미쳐 알파파를 활성화시킨다고 한다. 알파파는 사람이 편히 쉬거나 명상에 몰입할 때 나타나는 뇌파라는 것이 주목할 부분이다. 조교수는 이 연구결과를 해조음이 삼매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초음파를 인용했고, 한국은 경흥스님을 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과학적인 증거로 들었다.

‘동아시아에 보이는 원효저술의 영향’을 발표한 후쿠시 교수(배재대)는 중국과 한국에서 인용되는

원효저술의 인용빈도를 조사함과 동시에 그들 인용의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한중일 삼국에서의 원효의 영향을 진단했다. 중국에서는 법장스님, 이통현 장자 등 12명이 15부(部)에서 현존하는 <대승기신론소>, 현존하지 않는 <능가경소> <능가경중요> <능가경요> 등의 원효저술을 인용했고, 한국은 경흥스님을 시초로 15명이 25종의 저술에서 원효저술을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o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러시아 불교연합

‘로터스 달마센터’ 등 18개단체 결성 비삭축제 등 불교행사·유물등 소개

90년대 이후 불교계와 기독교계의 포교 각축장이 되어 온 러시아에서 불교의 교세는 어느 정도일까. 98년 4월 결성된 ‘러시아불교연합’ 사이트를 방문하면 러시아에서의 현 불교 교세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러시아불교연합은 개별적인 활동에 치중해 왔던 러시아 내 불교단체들의 역할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현재 러시아에서 일고 있는 각 종교간 포교 열풍 속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로터스 달마센터’ 등 18개 주요 불교단체들이 모여 결성됐다. 또 국제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사이트도 개설됐다.

이 사이트에서는 △러시아불교사 △불교유물·유적 △불교단체 △뉴스레터 등의 메뉴를 개설해 놓고, 이 곳의 불교세를 알리는 갖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각 사진들은 가져오기를 할 수 있다.

러시아불교연합회에서 개발해 놓은 ‘러시아불교사’에 따르면 러시아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몽골이나 중국 또는 티베트를 통해 18세기 이전부터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근래까지 영향은 미미했다는 것.

반면 학문적인 견지에서 러시아의 업적은 세계불교학계에서 결코 낮게 평가될 수 없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베로링크, 로드, 슈미트, 프란츠 등 수많은 불교학자를 배출해 이 분야 ‘러시아 불교학파’를 형성할 정도라는 것.

또 러시아불교연합 사이트에 따르면 80년대 이후 젊은이들이 불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

으면서 불교의 교세는 더욱 커져갔으며, 현재 전체 인구의 0.1%에 해당하는 40여만명이 불교도라는 것.

‘불교유물·유적’에서는 러시아 부리아트, 칼마크스, 투비안스 지역 불교사원을 소개하고 있다. 몽골과 인접한 이 지역은 18세기부터 불교문화의 요충지. 그러나 불세비키혁명 이후 이 지역의 사원들은 파괴되고, 스님과 불자들이 박해를 받았다. 29년에는 사원이 폐쇄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37년에는 부리아트에 남아 있는 마지막 사원까지 폐쇄되는 등 쇠락의 길을 걸었다.

이 메뉴에서는 부리아트에 있는 대표적인 사찰 토티트 사원, 러시아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비삭축제’의 전경등 32장의 유물·유적 그래픽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각 사진들은 가져오기를 할 수 있다.

‘불교단체’에는 러시아불교연합에 가입된 단체가 색인되어 있다. 여기에는 ‘닷산 콘츠세초 이네이 불교사원’ ‘로터스 달마센터’ ‘티벳불교 연구소’ ‘모스크바 불교센터’ ‘사카이 페터르 부르크 불교회’ 등 18개 불교단체의 간략한 소개와 홈페이지·전자우편 주소가 수록됐다. 대부분 티벳불교계 단체들로 구성된 러시아불교연합 소속 링크, 로드, 슈미트, 프란츠 등 수많은 불교학자를 배출해 이 분야 ‘러시아 불교학파’를 형성할 정도라는 것.

또 러시아불교연합 사이트에 따르면 80년대 이후 젊은이들이 불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http://www.assoc.emts.ru/welcome/



“선지식 결사 고구려서 시작 日 나라 민간결사에 영향”

도이교수, 한국고대사학회서 주장

고구려에서 시작된 ‘선지식(善知識)’ 결사운동이 백제에서는 ‘지식(智識)’ 결사로 활성화됐고 이 지식 결사운동은 일본 카와지 지방으로 전래돼 8세기 나라시대에 ‘지식(知識)’이라는 민간불교결사로 융성한 활동이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고대사학회(회장 주보돈)가 18일 개최된 제51회 정기발표회에서 ‘삼국시대의 불교결사와 나라시대의 지식’을 발표한 도이 쿤히코 교수(릿쿄대)는 “중국 북위 용문석굴 조상명에 ‘선지식’이란 명칭이 보이는데 이는 <법화경>의 내용으로 결사적인 의미는 인정할 수 없다”며 “결사로서의 선지식이라는 호칭은 고구려에서 시작됐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단순한 명칭의 변화나 북위불교의 연장이 아닌 불교 교의의 창조적 재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고구려 신묘명금동삼존불광배에 새겨져 있는 ‘선지식’이라는 글은 조상자 집단이 자칭한 호칭으로 도이 교수는 이를 고구려에 있어서의 불교의 창조적 재해석이라고 추측했다. ‘선지식’의 조상사제로 백제 말기 조성된 계유명아미타삼존사면석상(奈西銘阿彌陀三尊四面石像)에는 50인의 조상주집단이 ‘지식(智識)’이라고 자칭하고 있다. 고구려의 ‘선지식’이 백제지역에도 전파되어 단일 친족을 넘어 50인이자 큰 규모의 지식이 결성된 것을 드러낸다. 사면석상과 같은 해 조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삼존천불비상(三尊千佛碑像)에는 조상주가 지식(知識)이 아닌 항도(香徒)로 돼 있는 것이 특이한데 이는 신라로의 귀속의식과 관련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도이 교수는 신라에서 ‘선지식’이 결사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미 조상(造像)·사경(寫經)·조탑(造塔) 등의 활동을 벌이던 항도와 집합법회(占察法會) 등의 결사활동이 있었고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지식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지연 기자

日 인도학불교학회 50회세미나 세계 학자 250여명 참석

불교와 윤리·불전전산화 ‘집중논의’

9월 10일 양일간 일본 경도 용곡대에서는 인도학불교학회의 제 50회 학술대회가 250여명의 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10개 부회로 나눠 열렸다.

1년에 한번 열리는 인도학불교학회의 학술대회는 일본 불교학계에서는 특별한 이벤트로 특히 이번에는 정토 선 유식불교 등이 가장 인기를 끌었고 특별부회로 ‘불교와 윤리’에 대한 고찰이 시도됐다.

전세계적으로 4천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학불교학회는 동경대 인도철학과에 본부

를 두고 있으며, 세계적인 규모의 불교학회로 인정받고 있다. 매년 일본에서 열리는 학회에는 전세계에서 250여명의 학자가 10개 부회로 나눠 참가하며 시류에 맞는 불교사회적 문제를 집중토론하는 데카토론의 시간도 마련돼 환경, 인간복지, 불전전산화 등도 꾸준한 논의와 됐다.

이번 50회 발표회의 한국 참가자는 △‘의상의 법제연구’-도입스님(동국대 교수) △‘원효의 화쟁윤리-화엄일심에 관해’-해주스님(동국대 교수) △‘태고 보우의 선사상과 대혜선의 관계성’-혜원

스님(동국대 교수) △‘정량 진관의 법화경관’-해남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사두량선에 대하여’-김형준 강사(동국대) △‘말교승해초의 재고할’-이정수 등 일본에서 연구하는 △‘중장로의 행장에 대해서’-김지연 박사 △‘의적의 정토사상에 있어서 신도관에 대해서’-종림스님(동대) △‘군여 화엄학에 있어서 법화경관’-김천학(동경대) △‘백제 미륵사연구에서 본 가람구조와 사상에 대해서’-이흥림(일정대) △‘법화경 불심관의 구조에 대해서’-김영성(대정대) △‘티벳 몽골 불교의 고려 전래에 대해서’-서일범(진각대학) 등이다.

강지연 기자

“사명대사 사상 유불회통”

한국불교학술발표회 ‘사명당의 의의’

사명대사의 사상, 내면적인 갈등, 건봉사와의 관계 등을 조망한 ‘한국불교사에서의 사명당의 의의’ 학술발표회가 17일 동국대에서 개최됐다.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이 주관하고 건봉사(주지 해장)가 주최한 이번 학술발표회에서 ‘사명대사 유정의 정토사상’을 발표한 정병조 교수(동국대)

는 당시 불교계 풍토에서 사명당은 자성미타에 대한 견해와 타력적 정토신앙을 조화시킨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노자 교수(경희대)는 ‘삼국·통일신라·고려의 승병사를 통해 본 사명대사의 의의와 인간적·종교적 비드’을, 김상현 교수(동국대)는 ‘건봉사와 사명당’을 발표했다.

“불경은 고차원의 문학작품”

사제동 교수 ‘한국불교문학의 연구...’ 발표

충청불교문인협회와 중앙인문연구원이 주최한 한국불교문학 전국학술회의가 ‘한국불교문학의 실상과 문학사적 위상’을 주제로 11일 충남대에서 개최됐다.

학술회의에서 ‘한국불교문학의 연구현황과 전망’을 발표한 사제동 교수(충남대)는 “인도에서는 불경을 범어문학으로

취급하고 중국에서는 한역불경을 번역문학으로 간주 고찰하며 일본에서는 그러한 개념이 보편화 되어 불교문학을 넓게 관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불경을 가장 고차원의 값진 문학작품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불교시, 불전·승전·효행·강창문학, 불교회교 등이 발표됐다.

“벌(伐)하노라”

이순신 장군의 전쟁은 노랑 해전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제 조선 침략의 죄를 물어 일본을 벌(伐)하려 한다

임진 왜란 직후, 일본의 재침을 막기 위한 역국 정벌지기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노랑 해전에서 목숨을 건진 이순신은 천명을 받들다 이순신 장군과 일본 정벌의 주역들이 펼쳐는 2차 조선-일본 전쟁 시나리오는 과연 어떻게 끝날 것인가 교과서에 없는 통쾌한 일본 정벌의 역사, 진실의 민족 정신이 충무공의 전쟁은 노랑 해전에서 끝나지 않았다 임진 왜란 직후 극비리에 실행된 조선의 일본 정벌에 대한 숨겨진 기록 - 『일본 정벌기』 이 충무공의 전쟁은 노랑 해전에서 끝나지 않았다



일본 역사를 인본도가 쓴 역사 소설 - 전3권 각권 7,000원

●매달 독자 카드를 보내 주신 독자 10명을 선정해 도서출판 명상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명상 출판사 대표이사 이순신 장군을 기리며 민족의 영웅을 기리는 마음으로 『일본 정벌기』를 펴내겠습니다.